

제 203 호

연중 제28주일

1976. 10. 10.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법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시대의 징표□

● 감론 ●



부자와 영원한 생명

(마르코 10 : 17-31)

김 종 길 신부

부자 청년 :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부자 청년 : (침울한 표정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님 :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너가 바늘귀로 빠져나가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이상의 대화에서 볼때 예수님의 말씀은 현대인의 사고 방식에 전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다.

현대인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원한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심리를 이용하여 일부 사 이비 종교에서 천국행 티켓을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이 사회를 놀라게 한적이 있었다.

잘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은 좋은 일이다. 열심히 땀흘려 일하며 살도록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런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인류 사회는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최후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돈을 버는 것은 우리가 잘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따라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값있게 써야한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속담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하게 살기 위하여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사회 공익을 위하여 잘 쓰라는 말씀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돈을 벌어서 공동선을 위하여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안락과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쌓아 두거나 낭비해 버리는 수가 많다. 또 돈을 벌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 「기업은 망하여도 개인만 살면 된다」는 풍조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몇사람들의 욕심에서 이 사회가 부정부패와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경고하신다. 당신들의 이기심을 버리시오.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도 다 채우고 영원한 생명도 얻고, 빵도 먹고, 알도 먹고, 가재도 잡고 물도 치고, 손 안대고 코푸는식의 일거 양득을 위하여 어영 구영하지 마세요. 작자가 쓰고 남은 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고 한다면 일생동안 한번도 자신을 배풀지 못할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때 주님 사업을 위하여 봉헌금을 바치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어려운 처지라 할지라도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을 먼저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좁고도 험한 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부자와 영원한 생명', '돈과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자 천주교회 주임신부>



비가 오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도 3천여명이 숲정이에 모였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땀짜도 않고 행사에 참례한 교우들의 모습은 성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였다.

이날의 날씨는 마치 전주교구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심을 저울질하듯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미사가 끝나는 시간에만 날이 들었다.

작년말 현재의 교세 통계가 812명으로 나타난 교창 본당에서 버스 2대를 대절하여 102명이 참가하였다. 같은 비율로 따지면 59,385명의 교구 신자 가운데 7,460명이 숲정이에 모였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봐줘도 그 반절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도 시골 본당의 교우들은 버스를 대절하고 도시락도 준비하여 비땀은 몸을 말리지도 못한채 차가운 밥살갈로 점심 요기를 했다.

전주시내 6개본당의 주일날 공식미사 참례자 수를 아무리 낮추어 잡아도 2천명은 될데, 이날 숲정이에 모인 수는 그 5분의1 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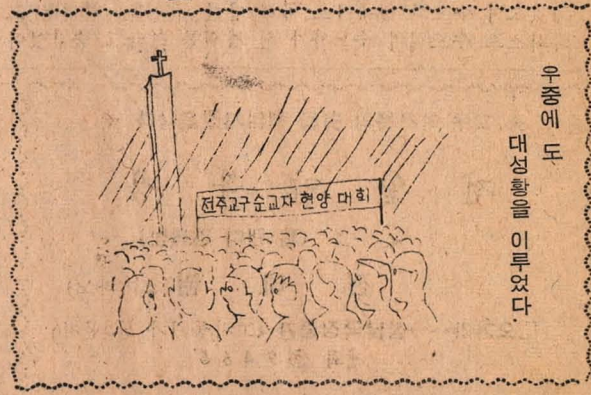
꼭 이래야만 할까? 적어도 교구적인 행사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증거하는" 일인가? 순교자 현양의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디는 것인가?

크리스찬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참여하는 일이다. 비가 오더라도 참여하는 일이다.

「일금이 잔치에 청한 손님들을 불러오라고 종들을 보냈지만 손님들이 오려 하지 않았읍니다. ...」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뽐히는 사람은 적습니다. (마태오 22, 1-14)

숲 정 이 산책



우중에 두
대성황을 이루었다

□대화의 장광□

순교자 현양 대회 - 무엇을 했는가?

교구 평협(平信徒 使徒職 協議會)과 정평위(正義 平和 委員會)가 합동으로 주관한 순교자 현양대회가 지난 10월 3일 鎭正이(現 全州 海星 中高校)에서 있었다. 새벽부터 내린 비가 미사 중에는 더욱 세차게 쏟아지다가 미사가 끝나는 정오경에야 그쳤다.

우산을 받쳐든 3천여명의 신자들은 미사에 앉아서 묵주의 기도를 바쳤다.

—우리의 순교자들이 하루빨리 성인품에 오르시도록, 성교회의 주교단·사제단·수도자들·평신도들이 하나로 일치하여 이 사회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정의를 위해 일하다가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특히 3. 1사건으로 고통 당하는 순교자적인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순교자적인 자세로 살아나갈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였다.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복자찬가 가운데 사제단이 입장하자 미사는 시작되었다. 이날 미사의 지향은 유인물을 통해서 밝혀졌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순교 선조들의 기록하고 높은 뜻을 기리는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시복과 시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오늘 우리의 삶을 순교적인 그것으로 봉헌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 1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비롯하여 진리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십자가를 진 분들을 위해서도 그들과 동참하는 의미로 기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땅에 하느님의 뜻이 바르게 퍼질 수 있는 그날까지 순교적 자세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피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강론에서 김재덕 주교님은 “이 고장에서 순교한 분 가운데 일곱분이 시복된 일이나, 이 루갈다와 유 요한의 신앙생활과 순교사실은 후손된 우리의 영광이요 자랑이다. 우리는 이 자랑을 자랑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그들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용기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순교자들의 뜨거운 행동은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낸 행동이다”. 라고 강조하시며 1977년도 교구 사목교서<믿음을 행동으로 증거하자>를 해설하셨다.

미사 후 시골에서 온 교우들은 해성학교에서 제공한 교실에서 점심을 들고 치명자산을 참배하여 말씀의 전례를 가졌다. 약 300여명의 교우가 산에 올랐었다. 정읍 본당 교우들은 초록바위와 남문밖을 거쳐 산을 오르기도 하였다.

이날 성모병원에서는 구급차에 의료진을 대기시켜 신자들의 건강을 보살폈고, 해성학교에서는 뜨거운 음료를 제공했으며, 성심과 해성학교 학생들이 안내와 장내 준비 및 뒷처리에 수고가 컸다. 이 대회의 뜻있는 산물은 <전주 지방의 순교 성지>라는 안내 유인물을 김 진소 신부님과 스타사장의 장남수 (바오로)씨 도움으로 낼 수 있었던 일이다.

□시간 안내□

칠 증 산

토마스 머튼 저, 정진석 역

429면, 성바오로출판사 발행, 1,600원

그는 금세기 기술주의와 행동주의의 대표적 존재였으며 대학시절에 이미 명성을 떨쳤고 영문학자요 문학평론가요 시인으로 성공하였으며 현대미술에도 조예가 깊고 재즈음악에도 열중했으며 한때는 공산주의 학생단체에도 가담했던 무신론자였다.

그러한 저자가 자기의 체면을 극복하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으며 수도회 중에서도 극히 엄한 규율을 지키는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도자가 된 경위를 조금도 숨김없이

기술하고 날카롭게 분석한 감동적인 자서전이다. 그의 앞길을 가로막던 유혹과 장애에 대한 묘사, 좌절과 실의 속에 방황하던 어두움과 수도원의 황홀한 내적 생활의 뛰어난 묘사, 그리고 태어날때부터 수도자가 되기까지의 생활을 솔직하게 고백한 이 자서전은 심금을 울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다.

한 인간의 단순한 사건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부, 영혼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현대사회에 대한 충격적인 통찰과 심원한 내적 영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교우 여러분의 뜻을 책임지겠습니다 ★

전 일 양 복 점

(舊 댄디 양복점)

전 태 권 (스테파노)

□오거리 ←→ 삼남극장중간 (교사동 1가 175번지)

전화 ☎ 9 4 6 5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동 압 (모이세)

노송동 ③4874	부안 736	남원 90	장수
다가동 ②4342	정읍 2157	임실 261	고창
전 동 ②2143	김제 45	무주	
군 산 3032	삼례 350	진안	

☆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로사리오 성월을 맞아

최 재 선 주교

10월은 전세계 가톨릭이 묵주알을 굴리며 하늘 어머니께 소원을 아뢰는 로사리오 성월이다.

이 땅에 가톨릭이 시작되던 때부터 한국 신자들은 특히 이 묵주의 기도를 사랑해 왔다. 많은 신자들이 매일 로사리오를 5단, 10단 또는 15단씩이나 바치는 아름다운 신심은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또 새로 성체를 받을때, 축일에, 또는 먼 외국 여행에서 돌아올 때, 묵주를 선물로 주고 받는 미풍도 성모님의 은총에서 연유된 것이리라. 이제 노사제가 된 나도 일생동안 수만 개의 묵주를 선물해 왔다. 그럴 때마다 묵주를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순박한 미소들 안에 성모께 대한 사랑이 깊이 젖어 있음을 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은 어른들 중에 묵주의 기도를 유지한 것, 아녀자들이나 가질 신심인 것처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 안에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기도는 가장 순박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 어린 아이가 부르는 '엄마'라는 말 속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듯이 단순히 되풀이 되는 어머니의 이름 속에 우리는 모든 의미를 찬미, 감사, 탄원, 속죄 등 -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는 로사리오의 기도 중에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베들레헴에서 켓세마니 - 풀고다 - 부활 - 영광에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다시 더듬을 수 있다.

요즘도 세계 도처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고 있다. 발현 때마다 성모님은 파티마에서처럼 회개와 보속,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매일 묵주의 기도를 바치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계신다. 성모님은 회개와 보속의 도구로, 또한 평화의 위한 가장 좋은 무기로 묵주의 기도를 제시하셨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는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정성드려 우리의 소원을 아뢰자. 할아버지의 수름진 손에도, 어린이의 고사리 손에도, 농부들의 땀배인 손에도, 정치인의 손에도, 묵주가 쥐어지고 하늘을 우러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한 평화의 모후께서 이 땅에 전쟁을 허락치 않으리라.

로사리오의 모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경향잡지 10월호 권두언 참조>

요십이 (167)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 원 준 (야고버)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고운 의상실

최 춘 자 (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 - 6 2 1 9

한국(流)온수 온돌 연탄보일러

※ 연탄 가스 때문에 고생하세요?
이제 염려 없어요.
한국 온수 연탄보일러가 연탄가스에서 해방시켜 드립니다.

연락처 : 전주시 중앙성당 상가
전 화 : ② 4 8 7 4

범 창 규 (베드루)

天使의 집

김선희 (베레사)
□ 전동 성당 옆 물품

□ 개원안내 □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 (아오스당)
전화 ② 1665

각종 생파자 식빵 및 케익

미미제과소

전화 ② 6 5 8 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옆)

유영문 (기에따노)



* 결 혼 *

강수역씨 7남 강장형 군,
김정순 (막달레나) 씨 장녀
이미혜 (말파) 양

일시 : 16일 <토> 12시
장소 : 노송 천주교회

제 4 지 구 각 분 당 소 식

공공지사항

1. 추계 주교회의 <11-15일> 주교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2.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19-22일, 가톨릭 센터, 회비 4,300원)15일까지 접수 바람.
3. 평택 정기 총회(24일(일)) 참가 범위...각 분당 사도회장, 지구 각 분과 위원장, 교구 단위 액선단체의 장
4. 가톨릭 농민회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25일 오후 2시-26일 오후 1시, 대전 가톨릭 문화회관>
 제1부...① 주수 감사제(주교단 공동 집전) ② 각 지방 특수 농산물 봉헌
 제2부...교구별 장기 자랑 ③ 쌀 생산비 조사 보고대회
 ○참가 희망자는 10월20일까지 가톨릭 센터내 농민회에 접수바람(25일 11시 집결, 출발 예정)
 5. 제2차 교리교사 대의원회(10일 오전 11시, 가톨릭 센터)
 ※ 참가대상-각 분당 회장, 각 지구 회장단(공문 전교연 제76-7호 참조)

(중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사 보 과학 신부 이 중 원
 사 도 회 장 이 상 용

1. 사도회 월례회: 10일 공식 미사후
 ※ 구역장, 반장님의 참석 바람
2. 전국 울드레아 광주에서 갖음: 신자들의 기도 바람.
3.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

(노충동)

전화 ②7032 주 임 신부 공 아 영
 사 도 회 장 박 중 용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임원 개편: 사도회장-박중용, 부회장-김성록, 유영철, 고문-조해형, 이태영, 박성규, 소기배
 감사-장성복, 김용수, 선교분과-김성록, 봉사분과-이재열, 전례분과-박춘근, 재경분과-유영철
3. 각 구역장, 반장 모임 <12~13일>: 12일(화)-오후 7시반, 중노1가, 13일(수)-남노, 인후동, 우아동.
 ◎ 각 구역장, 반장님은 위의 해당일정에 꼭 참석바람

(덕진)

전화 ③2182 주 임 신부 박 중 근
 사 도 회 장 김 용 환

1. 가정 방문 및 반미사 일정(덕진): 5반-11일, 6반-12일, 7반-13일.
2. 버 베기 봉사활동: 17일 공식 미사후
 ◎ 뜻있는 분은 분당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람, 준비-도시락, 냇.
3. 미사시간 변경: 주일, 토요일 저녁 미사-7시반.
4. 성당 신축 성금 수입: 임관순, 박영철(각 1만원), 한상갑(10만원), 계 120,000원, 누계 4,151,500원
5. 애령회 성금 회사: 강일형(3,000원), ◎ 감사합니다
6.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후
7. 사도회 임원보선: 고문-김수근, 전례(위원장-차금섭, 차장-이건장), 선교(위원장-김은식, 차장-이범수), 덕진구역 부회장-임병순, 금암구역부회장-강영배.

(복자)

전화 ②5238 주 임 신부 김 중 길
 사 도 회 장 조 성 호

1. 77년도 (76년 10월 1일부터) 예산 총액 6,312,000원
2. 복자 성우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사도회 장단, 각 분과위원장은 분당 사목 연중계획을 연구하여 참석 바람.
4. 도장공사 기금 신입액을 속히 납부해 주십시오.
5. 주일 봉헌금을 좀더 정성드려서 봉헌하십시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 임 신부 오 령 태
 사 도 회 장 박 장 춘

1. 면접 일정: 아래 일정에 해당되는 반원은 적극 협조 바람. 12일(화)-5반, 13일(수)-6반, 14일(목)-7반, 15일(금)-8반.
2. 면접 누락자(1, 2, 3, 4반)및 중·고등학생은 9일, 10일 밤 8시 면접에 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견진 성사 신청: 견진 대상자는 24일까지 신청바람.
4. 도장 공사 헌금: 김옥춘, 박완기, 국춘환, 원귀철(각 1만원), 이흥재(7천원), 김현섭(5천원), 박복규(4천원), 김맹수, 이원석, 조낙원, 이광권, 나경자(장병동), 유선중, 이석희(각 3천원), 최인득, 백태종, 엄한국, 김정자, 이원용, 김재철(각 2천원), 김중근, 이길우, 이호배, 심연옥(각 1천원)

(전동)

전화 ③3222 주 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김 병 환
 사 도 회 장 유 석 중

1. 사도회 첫 회합: 오늘 저녁 미사후
2. 자모회: 10시 미사후
3. 성화회 장우회: 10시 미사후
4. 성 가정회: 월요일 오후 2시
5. 예비자 교리: 주일(9시 미사후-학생, 10시 미사후-일반(女)). 수요일 저녁 8시-젊은 男, 女 금요일 저녁 8시-일반 男
 ※ 10월은 선교의 달.....내 가족 선교부터
6.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14일 저녁 8시(통장 지참)
7. 분과 위원장 개편: 총무-김병호, 재무-박순기, 선교-온노균, 전례-이영희, 봉사-김대원. <동 회 장은 1년간 변동 없음>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수 신태정 창제류인음	성모회 월례회	원원원원원	제 3 지구	주현 동창인 동화	대의원회	원원원
		대의원 총회				어머니회 정기총회	
제 2 지구	대 윤명 동중합	정읍성당 총회, 만나회	원원원원원	제 4 지구	중 노 송덕부 서학동전	신용협동 조합 월례회	원원원원원원원
		정·부회장 선거				버베기 봉사 활동	
제 3 지구	고 금여 삼	사도회 임시회합	원원원원원	제 5·6 지구	무 장진 남순입	사도회 정기총회	원원원원원원원
		사도회 정기총회				견진 성사 회당자 접수	
		청년회 월례회				사도회 첫 회합, 자모회	
		교리 교사회				미사시간 변경	
		사도회 월례회				성모회 모임	
		신용협동 조합 월례회				신용협동 조합 월례회	
						매주 미사 전 신자 재교육	